

“불교연구자들에게 많은 도움 됐으면”

‘인도불교사’ 8년만에 완역한 호진 스님

“오래전부터 이 책이 번역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양이 방대하고 고대불교 전반에 걸쳐 해박한 지식을 갖지 않으면 안될 정도로 내용이 준 백과사전과 같은 것이어서 엄두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불교연구역사에 있어 한 획을 긋는 기념비적 저술로 평가 받는 에피엔 라모프(1903~1983)의 <인도불교사(Histoire du Bouddhisme indien)>. 붓다의 생애, 초기불교 교리, 교단의 조직, 성전의 성립과 발달, 불교의 언어, 부파의 기원, 전도와 전파, 아비다르마의 발전, 조각과 건축, 유적의 발굴, 문헌학, 금석학, 고전학 등 고대 인도불교의 모든 분야를 망라하고 있다. 거기다 인도 서북부인 카슈미르와 간다라, 스리랑카의 불교 역사까지 포괄하고 있고 자료도 그리스와 라틴, 중앙아시아, 중국, 티베트의 자료까지 종합적으로 고찰하고 있어 불교연구의 이정표로 불린다.

저자인 에피엔 라모프가 1949년부터 10여년에 걸쳐 저술한 <인도불교사>를 8년동안 심혈을 기울여 번역한 호진 스님(기림사 동안·동국대 불교학과 교수)은 “무거운 짐을 벗었다”라는 말로 소감을 대신했다.

스님이 <인도불교사>를 접한 것은 1978년 1월이었다. 스님은 그때의 기쁨을 아직도 잊지 못한다고 말한다. 이후 이 책은 초기불교와 부파불교를 연구하는 스님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자연히 이 책을 한글로 번역해 보겠다는 발원도 하

게 됐다. 그런 와중에 시공사의 편집진(?) 번역 요청이 스님의 작업을 미룰 수 없게 했다.

“출판사의 제의를 받고 망설였지만 <인도불교사>를 한국어로 출판하는데 있어 만나기 어려운 기회라 생각하고 용기를 냈습니다. 1996년 11월 출판사와 계약을 맺고 다음해 3월초부터 4년을 목표로 번역을 시작했는데 8년이 넘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스님은 “8년이란 세월은 인고와 보람의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1976년 출판된 2쇄본을 텍스트로 총 14권을 읽고 번역했고, 1988년에 나온 영역본을 대조하는 등 꼼꼼하게 작업했다. 특히 본문에 나오는 한문 원전의 내용을 대부분 직접 확인하여 스님이 (*)로 표시하고 주(註)를 새로 달기도 했다. 인도 서북지방의 그리스식 고유명사들은 영어식 발음으로 표기했다. 예를

들어 그리스어 알렉산드로스(Alexandros)의 경우 불어 알렉산드르(Alexandre)로 표기했다. 역시 산스크리트의 ‘v’ 발음은 ‘b’으로 표기해 ‘Nirvā’를 ‘니르와나’라고 하는 대신 우리에게 익숙한 ‘니르바나’로 했다. 또 사지도 대부분 스님이 직접 찍은 최근의 것으로 바꾸거나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은 삭제했다. 호진 스님은 “라모프의 <인도불교사>가 출판된 지 거의 반세기라는 세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양과 질, 내용면에서 이 책을 능가할 고대 인도불교역사서는 나오지 않았다”며 “이 책이 많은 불교연구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랄뿐”

대승불교 이전까지의 불교사 정리 불어원본 번역 끝내고 영역본 대조 한문 원전 직접 확인해 각주 달아 고유명사 등 현대 표기법에 맞춰

들어 그리스어 알렉산드로스(Alexandros)의 경우 불어 알렉산드르(Alexandre)로 표기했다. 역시 산스크리트의 ‘v’ 발음은 ‘b’으로 표기해 ‘Nirvā’를 ‘니르와나’라고 하는 대신 우리에게 익숙한 ‘니르바나’로 했다. 또 사지도 대부분 스님이 직접 찍은 최근의 것으로 바꾸거나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은 삭제했다. 호진 스님은 “라모프의 <인도불교사>가 출판된 지 거의 반세기라는 세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양과 질, 내용면에서 이 책을 능가할 고대 인도불교역사서는 나오지 않았다”며 “이 책이 많은 불교연구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랄뿐”



인도불교사 1·2
호진 스님 옮김
시공사
1권 3만5000원
2권 3만원

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발간된 <인도불교사>에는 초기불교부터 대승불교가 일어나기 이전까지 기술돼 있다. 책의 구성은 제 1장 붓다시대의 인도, 제 2장 마가다 시대, 제 3장 마우리아 시대, 제 4장 승가왕조와 아비다르마 시대, 제 5장 사가-빠후라바 시대, 제 6장 부파불교, 제 7장 불교라는 종교 순으로 되어 있다. 호진 스님은 특히 눈여겨볼 대목으로 제 1장 부처님 시대의 역사와 초기 교단성립과 교리 그리고 제 2장 불교성정이 어떻게 성립되었는지, 제 6장 부파불교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꼽았다. 스리랑카 승가회로부터 ‘불교성정의 전문가’란 칭호를 받은 에피엔 라모프는 벨기에 디남에서 태어나 고향인 노트르담 드벨뤼대학에서 그리스 라틴고전을 연구한 뒤 가톨릭 사제가 됐다. 그는 당시 유럽에서 가장 위대한 불교학자로 꼽히던 루이 드 발레부생과 실벨 레비의 제자로서 불교 연구를 시작했다. 그는 벨기에 루뱅대학에서 45년간 인도 및 불교학을 가르치며 불교연구에 전념했다. 라모프는 프랑스의 로알 폴레주드프랑스 왕립대학에서 산스크리트학과 고고학을 연구하며 간다라 불교미술 연구의 선구자가 된 알프레드 푸세 교수가 별세하기 며칠전 ‘인도불교사를 다시 써달라’는 부탁을 받는다. 당시 인도불교사는 6권 정도가 있었지만 모두 일본서나 개론서 수준을 넘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인도의 새로운 필사본 발견과 중국과 티베트의 자료들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 금석문들의 발견과 고고학적 발견물들로 인해 인도 역사에 대한 정보가 증가된다. 라모프는 이 새로운 자료들을 근거로 불교역사를 다시 써야 할 때가 되었음을 직감한다. 그래서 나온 것이 <인도 불교사>다.

김원우 기자 wkim@buddhapia.com

네티즌강추

극과 극 취향의 두 소녀가 나누는 빛나는 우정

시모츠마 이야기 두드림, 타케모토 노바라 지음
개성 있는 두 소녀의 독특한 우정. 별 다섯개를 주어도 아깝지 않을 소설. 다소 만화같이 억지스럽고 황당한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유쾌하고 즐겁다.

즐거움을 짧게 정리하자면 로리타 패션의 모모코와 폭주족(오토바이를 좋아하는)이치코란 극과 극을 달리는 두 소녀의 독특한 우정을 그렸다. 또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는 두 소녀의 그 뚜렷한 개성이 부럽기까지 하다.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들이 좋아하는 것에 맹목적으로 매달릴 수 있는 그 용기. 가장 배우고 싶고, 지금 내게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닐 수 없다. (어릿광대, aladdin.co.kr)



배어난 작품성에 신화적 재미까지

나니아 연대기 시공주니어, C. S. 루이스, 폴린 베인즈 지음
대표적 환상 소설이자 유일한 동화인 <나니아 연대기>는 재미에 대한 무책임한 기대를 현실화하고 있다. 7연작을 합본으로 묶어 놓은 책의 경우 깨알 같은 글씨로 쓰여진 장수가 무려 1000장이 넘어 가는데, 한 번 손에 들면 놓을 수가 없다는 그 상부적인 문구와 그대로 적용되는 작품인 것이다. 배어난 문학 작품이면서도 재미를 잃지 않고, 거기에 더해 플롯 자체로 가치 있는 신화적 가치를 획득한 나니아 연대기. 이러한 감동이 모든 독자를 찾아갈 것이라고 감히 약속할 수는 없지만, C.S.루이스가 <문학비평에서의 실험>에서 선언한대로 문학 작품을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모든 ‘문학의 수용자’들에게 감히 이렇게 의친다. 지금까지의 당신의 삶은 표지에 불과했다고. (mung93, book.naver.com)



우린 아시아 동쪽 조용한 나라가 아니라구

한국 속의 세계 창작과비평사, 정수일 지음

내가 알고 있는 역사관에 많은 것을 더하고 또, 많은 것을 빼 주었다. 무엇보다 우리는 옛부터 아시아 동쪽 끝의 조용한 은둔국이라는 통념을 깨뜨렸다. 다른 민족 신화와 비교해 우위라는 단군 신화와 고구려 건국 신화는 이해하기 쉽진 않다. 하지만 무엇보다 책을 읽으면서 느끼는 것은 저자의 지극한 우리 것에 대한 사랑이다. 우리 속의 세계를 밝히는 일은 사대심도 아니고 자만심도 아니다. 우리 문화와 역사에 대한 정확한 시선과 그로 얻는 자부심이다. 아쉬운 점은 각주와 참고 문헌 등을 통해 새로운 해석을 처음으로 접하는 독자에게 최소한의 정당성과 사실성을 부여 주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점이다. (dhmk, libro.co.kr/book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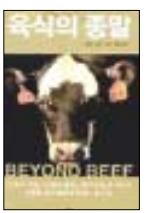


책속의 밑줄긋기

○... 주술바뀌는 흥인, 황인, 흑인, 백인의 네 인종, 동서남북의 네방향, 흙 공기 물 불이라는 네가지 물질 요소. 영혼 정서 육체 정신이라는 인간 본성의 네열공들이 네가지 측면은 저마다 굉장한 선물로 자라날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나무의 씨앗과도 같다. 이 가능성을 내다보고 자신의 의지대로 그렇게 되려고 노력할 때 우리는 자기가 원하는 바로 그 존재가 될 수 있다. -<신성한 나무> 중 49쪽, 펠리엔 주니어의 지음, 산티



○... 미국에서는 전체 쇠고기의 15%를 차지하는 젓소들에게 항상 물질들이 투약되고 있다. 따라서 인간은 알게 모르게 질병을 유발하는 박테리아에 취약해질 가능성이 있다. 미국 식품의약청(FDA) 관리자들은 몇몇 비육장에서 비용을 줄이고 동물들의 체중을 좀더 빨리 늘리기 위해 사료에 산업 오수와 기름을 첨가하는 것이 이제는 공공연한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육식의 종말> 중 20쪽, 서공복스, 제레미 리프킨 지음



블서구입은 www.yosiamun.com

2006년 신개발 **후불제 실시** 스님이 만든 **스님, 불자님 전용 가방**

스님, 불자님 외출 시 승복 및 필수용품을 넣는 좋은 가방을 개발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권해드립니다.

가 격
본가방 1개 + 작은가방 1개
3만 9천원
* 택배비는 1개 주문시 구매자 부담, 2개 이상은 판매자 부담

사이즈
● 본가방: 가로 440 × 세로 350 / 너비 90 × 끈길이 110
● 핸드가방: 가로 285 × 세로 210 × 너비 70
● 제조원: 국내(한국산)

- 특 징: 불자님께 꼭 필요한 필수 용품, 승복 내장 시 구김 및 증트러짐 방지(고무밴드 부착), 가방끈 탈부착 가능, 불자님께 맞는 품위있는 디자인(울쑤, 佛字, 고급자수), 어깨끈 사용시 미끄러짐방지 기능(찍찍이 부착), 명찰 부착 기능(다른 가방과 혼동 방지), 물세탁 가능, 의장등록 출원중 수익금은 사찰 건립 추진금으로 쓰입니다.
- 고급원단 사용으로 견고하며 국내에서 제조되어 반 영구적이며 모든 스님과 불자님께 선물용으로 좋습니다.
- 가방이 수입품이거나 아까지 100% 반품 가능합니다.
- 우분께 - 제품을 받아보신 후 입금 하시면 됩니다.
- 주문전화: 대한불교 법정사 051)504-5777 [계좌번호: 농협 121072-56-116911 예금주 조연순]

바로보인의 책들
대한 불교서원 신간사업역사 / 서사기

전장 대선사님의 인가제자 대원 문제현 선사님
역겹의 무명을 일깨우는 통쾌한 **법법문!**

바로보인 건동록 5권
바로보인 부문관
바로보인 백암록
바로보인 권부경
바로보인 금강경
바로보인 신심명
바로보인 환단고기 5권
바로보인 증도가
바로보인 반야심경
영원한현실

선을 묻는 그대에게 (10권 중 2권까지)
바로보인 선문염송 (30권 중 7권까지)
세월을 복채로 세상을 복삼아
앞뜰에 국화꽃 곱고 복삼에 찻는 희다

<선(禪)을 묻는 그대에게 2권 증강!>

선(禪)을 수행하는 분들이 기다리던 선 수행 문답집. 깨달아 사무친 경지에 대한 이렇게 밀밀한 질문과, 오우보림에 대한 이토록 구체적인 수행법 제시와, 최초의 무명과 우주생성의 원리까지 온전하게 통달하여 남남이 설한 이러한 법문은 여태까지 없었다.

02-522-0122 www.zenparadise.com

청운 스님 진품 달마도

귀의 삼보 하옵고
청운 스님께서 직접그리신 달마도는 오랜 정진을 통한 선(禪)기가 녹아 있습니다.
달마도는 인간의 근본 마음을 밝혀줌으로써 삶의 모든 어두운 불행의 기운을 사라지게 만들어 밝고 행복한 삶으로 바뀌어줍니다.
청운스님의 영적 힘을 가진 진품 달마도를 소장하시고 소원성취도 이루십시오.

나무원세보살
* 달마도(그림)만 구매 가능합니다. 각 호수를 불러주세요. 10점이상 구매시 사찰명을 새겨 드립니다.

달마도 6호-그림: 35×45cm 액자: 47×64cm
달마도 8호-그림: 35×68cm 액자: 47×88cm
달마도 10호-그림: 45×75cm 액자: 58×94cm

● 구입문의: 불교용품 전문기획 달마 SHOP 051)851-5535
입금계좌: 농협 949-02-315451 (정정애)